

제14회 제주포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세션

제주와 오키나와 : 동아시아 섬의 미래

Jeju and Okinawa : the Future of the Islands in East Asia

일시 2019년 5월 31일(금) 09:30~11:00

장소 제주컨벤션센터 Room 203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Jeju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Peace Studies

프 로 그 램

09:00	등 록	좌장 : 김동윤(제주대 교수) KIM Dong-yun(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09:30~09:40	개회사	조성윤(제주대 평화연구소 소장) Cho, Sung Youn(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09:40~10:00	발표 1	오кина와, 군사기지,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니시하라 가스히사(일본 세이조대 교수) Okinawa, Military Bas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Kazuhisa NISHIHARA(Professor, Seijo University / Professor Emeritus, Nagoya University)
10:00~10:20	발표 2	제주 제2공항과 시민사회 그리고 헤게모니 투쟁 서영표(제주대 교수), 장훈교(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Jeju 2nd Airport, Civil Society and Hegemonic Struggle Seo, Young-Pyo(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 Jang, Hun-Gyo(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the Research of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 Jeju National University)
10:20~11:00	토 론	이명원(경희대 교수) Lee, Myung-won(Professor, Kyunghee Univ.) 최진석(일본 히로시마대 교수) Choi, Jinseok(Professor, Horosima University) 정영신(도청 앞 천막촌 연구자공방 연구자) Chung,Young-Sin(Researcher, Research Workroom of Citizen's Tent Village)

목 차

발표문 1

오кина와, 군사기지,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	9
니시하라 가스히사	

Okinawa, Military Bas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	17
Kazuhisa NISHIHARA	

발표문 2

제주 제2공항과 시민사회 그리고 헤게모니 투쟁 -----	31
장훈교	

Jeju 2nd Airport, Civil Society and Hegemonic Struggle -----	40
Jang, Hun-Gyo	

토론문 1 ----- 55

이명원	
Lee, Myung-won	

토론문 2 ----- 57

최진석	
Choi, Jinseok	

토론문 3 ----- 63

정영신	
Chung, Young-Sin	

발 | 표 | 1

**오키나와, 군사기지,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Okinawa, Military Bas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니시하라 가스히사
(일본 세이조대 교수)

Kazuhisa NISHIHARA
(Professor, Seijo University /
Professor Emeritus, Nagoya University)

오키나와, 군사기지,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니시하라 가스히사

(일본 세이조대학교 교수, 나고야대학 명예교수)

서론

2019년 3월 초, 동아시아 사회학회(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 EASA)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학회가 설립되었다. 필자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학회 내에 ‘초국가사회학(Transnational Sociology)’이라는 상설연구단체를 조직했다. 도쿄에서 개최된 EASA 창립총회에서는 초국가사회학을 주제로 총 2개의 세션이 열렸다. 세션명은 ‘초국가사회학 1: 동북아의 초국가적 관계’와 ‘초국가사회학 2: 사회과학과 오키나와 이슈’로 결정되었다. 논문 발표를 위해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오키나와 학자 10명이 세션장을 찾았다. 말 그대로 초국가적이면서도 지역적인 행사였던 셈이다.

필자는 두 세션의 조직위원장으로, 제1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일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이동은 사회 자체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라는 개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라고 하면 주로 ‘국민국가 내부의 사회’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사회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는 추세입니다. … (중략) … 따라서 저는 사회학의 개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벡, 1986)

전 세계 미디어 네트워크의 탈전통화 및 제도화에 발맞춰, 이제 각자의 직접 생활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개개인은 국경을 넘어서는 전기(傳記)를 쓰기에 이르렀다. … (중략) … 국가 차원의 정부가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활동해 왔다면, 오늘날 개인의 일생은 세계 사회를 무대로 열려 있다. 다시 말해, 세계사회는 이제 사적(私的) 전기의 일부가 된 것이다.”

벡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실증주의적 지식은 ‘충실하게’ 재생산된 과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필자[=벡]의 주장은 새로운 요구, 즉 … (중략) …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상을 포착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열리는 두 세션을 ‘국제사회학’이나 ‘세계사회학’이 아닌 ‘초국가사회학’이라 명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제사회학은 국민국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세계사회학은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자의 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삶이 생생하게 조명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국가를 초월해 이동하며 세계 각지에서부터 수많은 초국가적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초국가사회학은 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상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지향적 사회학인 것입니다!”

이번 제주대 발표는 상기와 같은 지향을 토대로 초국가사회학적 관점에서 동북아사회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에 관한 논의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오키나와 이슈와 최근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 경향에 있어 기초적인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제주도에 관한 고찰도 이루어진다. 본 서론에 더하여, 이후의 단락은 필자의 시각으로 본 “초국가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실증적 초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이상적 초국가주의”라는 관점을 다루고 있다.

1. 하와이, 오키나와, 제주,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EAC)

여러 차례 다른 행사(EASA 총회 등)에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오키나와의 역사를 간략히 짚고 넘어갈까 한다. 과거 오키나와는 독립국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병합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동안 미국과 치른 전투에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 더해, 종전 후에는 27년간 미국의 통치를 받았고, 지금도 주일미군기지의 70%가 오키나와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도 일본 국민 중 절반가량이 미군기지 주둔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미일 정책을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정치적 대립에 기인한다. 따라서 필자는 진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실현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경제에 있어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으며, 각국 국민 간에는 사회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 교환학생, 결혼이민자 외에도 해외여행객들이 ‘초국가적으로’ 국경을 넘나든다. 사회문화적 관계로써 정치군사적 갈등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키나와의 현재 역사적 상황은 제주도와 비슷하고 심지어 하와이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유사점은 다음의 10가지 사실에서 주로 나타난다. 1)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2) 한때는 독립국이었으며, 3) 본토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병합되었다.

또한 4) 전쟁 혹은 내전에 연루된 경험이 있고, 5) 현재는 군사기지 이슈에 직면한 상태이며, 6)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에 포함된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7) 반(反) 기지운동이 진행 중이고, 8)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이 있으며, 9) 국제적 도시를 지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평화의 섬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해 상기 분야에 있어 평화 증진과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은 명징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일본과 오키나와의 사례 몇 가지를 통해 운동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최근 오키나와에서 논의된 비전들

현재 오키나와에서 진행 중인 4대 사회운동은 다음과 같다.

- 1) 제헌 운동: 가와미쓰 신이치로 대표되는 「류큐공화사회헌법」 구상을 말한다.
- 2) ACSIL 운동: ‘류큐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The Association of Comprehensive Studies for Independence of the Lew Chewans, ACSIL)’ 운동(류큐민족: 오키나와 주민)으로 마쓰시마 야스카쓰가 이끄는 신진 독립운동이다.
- 3) EAC 운동: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는 EAC 연구소 및 EAC 협회라는 2개 단체가 주창한 운동이다.

(4번째로 중요한 운동으로는, 4) 반기지운동을 꼽을 수 있다.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를 일본 본토로 옮기자는 운동으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상의 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첫 번째 운동에서는 오키나와 지식인들의 담론이 주목할 만하다. 가와미쓰 신이치가 운동에 관해 의견을 냈고, 특히 1981년에는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정식 명칭은 「류큐공화사회헌법(류큐: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다. 오키나와 지식인들은 여전히 매우 고무적이고 도전적인 담론을 진행 중이다. 가와미쓰가 작성한 헌법에는 이상적인 초국가적 지향, 즉 ‘탈국가적’ 지향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가와미쓰는 초안 제1조에서 “국민국가 폐지”를 선언했다. 제11조에서는 오키나와 거주민뿐만 아니라 헌법의 목적에 동의하고 ‘류큐공화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종, 민족,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가와미쓰, 2010: 109) 가와미쓰는 국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트워크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카라 벤의 계획에서 구상한 「류큐연방공화사회 네트워크헌법」은 (지리적 국가의) 경계가 없는 네트워크사회의 헌법을 의미한다. (가와미쓰 외, 2014)). 어떤 식으로든 가와미쓰의 구상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니시하라, 2010; 2018) 1995년 오키나와에서는 미해군 소속 병사가 어린 소녀를 강

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주일미군기지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초래했다. 이러한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1981 헌법 초안이 다시금 각광을 받았다. 해당 헌법은 2010년대에 와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되어 헌법 초안 이 담긴 책이 여러 권 발간되기도 했다. (가와미쓰, 2010; 가와미쓰, 나카자토, 2014) 당시 일본정부와 미군은 오키나와의 헤노코 지역에 신규 기지 건설을 구상하고 계획을 마무리하던 상황이었다.

두 번째 운동은 독립 운동으로서 중요하다. 운동을 주도한 마쓰시마 야스카쓰는 2010년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ACSIL을 조직했다.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류큐를 ‘류큐네시아자치공화국연방(류큐네시아: 류큐제도)’으로 선언한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데도 현재 주일미군기지 중 70%의 주둔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 (중략) ... 류큐인(오키나와 주민)은 1972년 미국이 일본에 류큐를 반환한 이후 계속해서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여전히 류큐인 공동체에 인접하여 주둔 중이다. ... (중략) ... 우리는 류큐 영토가 더 이상 미군 기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바이다. 독립을 얻는 즉시 우리는 기존의 미군기지를 일본으로 반환할 것이다.

독립선언 외에도 「ACSIL 헌장(2013. 5. 15 발행)」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우리 섬에서 군사기지를 모두 몰아냄으로써 우리 류큐인은 오랫동안 꿈꿔 온 목표, 즉 전 세계 다른 국가, 지역, 민족과의 친선 관계 속에 존재하는 평화와 희망의 주권영토가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중략) ... 우리는 독립의 가능성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나, 독립을 연구 대상이자 정치 프로젝트로서 진지하게 대하고자 한다.

세 번째와 마지막 운동은 동아시아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최근 오키나와/일본을 위해 고안된 지역공동체 비전들

이제 동아시아공동체(EAC)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 근대 일본의 사상 분야를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시아주의(Asianism)”와 뒤얽힌 상황이긴 하나 세계적 지향성도 몇 가지 등장한다. 도쿠가와 시대 말엽 벌어진 상황과 메이지 시대의 자유민권운

동, 그리고 심지어 다이쇼민주주의 시대의 식민지관리 이론에서도 이러한 지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15년에 걸친 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 동안 ‘동아협동체’라는 대단히 제국주의적인 발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일본을 지도국으로 전제하는 바, 부정적 유산으로서 비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종전 후 동서냉전기에는 동북아 교류가 “미미”하다가, 1990년을 기점으로 이어진 탈냉전 시대에는 “교류 속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때문에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미-일 중심 체제 하의 일본 국민이 직시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존재했다.

결국 근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했다.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구상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EAEG는 얼마 후인 1992년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로 바뀌었다.)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제1차 장관급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EU가, 북아메리카에서는 NAFTA가 설립되었고, 아시아에서는 NEIS가 생겼으며, 아시아에 환을 위기가 닥쳤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의 동아시아공동체 계획(일본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부분을 차지함)이 시작되었다. 2004년 도쿄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협의회(CEAC)’ (회장: 나카 소네 야스히로 전(前) 총리)가 창설되었다. (동아시아공동체협의회, 2010)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제에 바탕을 둔 운동이었다. 반면에, 이 시기 이후로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운동이 몇 가지 생겨났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모리시마 미치호 교수, 강상중 교수를 비롯한 일본 내 자유진영 지식인들이 EAC에 관해 진지하고 긍정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런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모리시마 교수가 중국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오키나와 나하를 수도로 EAC를 창설하자고 주창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모리시마 2001) 강상중 교수가 제시한 ‘동북아 협업/협력기관’이라는 발상 역시 흥미롭다. (강상중, 2001) 여기에 더해 다른 일본 지식인들 역시 EAC에 관한 입문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지식인들의 제안이 전개되는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前) 일본총리가 도쿄(2013) 및 오키나와의 주도 나하(2014)에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를 설립했다. 기무라 아키라와 같은 학자들 역시 2016년 ‘동아시아공동체오키나와(류큐제도)연구회’를 조직했는데, 마쓰시마 측 협회와 하토야마 측 연구소 소속 회원들이 함께 했다. 원론 및 이론적으로 볼 때 제헌운동과 독립운동은 서로 다른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 지향적 사고, 비무장 지향, 반전(反戰) 사상, 반기지 구상 등에서 보듯 공통된 지향점이 다수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키나와의 문제가 단순히 지역 혹은 국가 이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내 및 세계 이슈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동북아 국가(주로 중국, 한국, 타이완)의 지식인 담론이 어떠한지 살펴볼 차례다. 애석하게도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담론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한국의 사학자 백영서 교수 정도가 EAC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중국 지식인들에게 동아시아에 중점을 둔 관점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학자를 들자면, 중국의 쑨거 교수는 종종 동아시아에 관한 논의의 딜레마와 제국주의 일본의 부정적 유산을 언급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첸관싱 교수는 아시아에 탈제국주의 이론을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운동이 얼마나 전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동이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현 시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 한국, 타이완의 연구진이 같은 방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서로 의견이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과거(전쟁 이전 시기) 일제가 추진한 제국주의적 동아시아동맹의 문제를 비판한다는 점과 현재의 제국주의적 움직임을 통렬히 비판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국적의 자유진영 지식인들을 포함해 많은 연구자들이 EAC 이슈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일 역시 향후 동아시아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4.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재)고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EAC와 관련한 시도는 주로 경제를 바탕으로 하거나 일본 정부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오키나와/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운동이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다음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1)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정치·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학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2) 서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지닌 사람들이 “공생(Conviviality)”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3) 따라서 국제적 교류에 있어 동북아 지역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염두에 둔 상호주관적 교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이러한 연대의 확장과 발전이 반드시 아세안+ 지역 및 환태평양지역 주민과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오키나와와 제주(그리고 하와이)가 이들 주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를 감축하거나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지사로 당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오키나와 현지사와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다. 게다가 절반에 달하는 일본인이 그와 같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필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동북아와 인근 해역에서 대립 관계가 다수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러시아/일본, 한국/북

한, 북한/일본, 북한/미국, 한국/일본, 오키나와/일본, 중국/한국, 중국/타이완, 중국/필리핀, 중국/베트남, 중국/미국 관계처럼, 두 나라 혹은 두 지역의 경계를 나누는 선이 존재한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경계선과 관련 있는 갈등 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갈등은 과거 냉전 체제의 잔재 및/또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에 따른 새로운 냉전 체제로 인해 발생한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슈는 지역·국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역·세계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오키나와 (그리고 제주의) 군 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평화 안보 체제를 건설하는 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아시아는 국가 간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정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숙하다. 역내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보통 사람들 간에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에는 초국가적 상호작용이 경제와 정치 영역 밖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이동과 국민국가를 초월한 문화교류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니시하라 2019) 따라서 국경은 사실상 이 지역에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극복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양자 간의 소통은 어느 일방의 문화적 배경만을 토대로 한 관계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슈츠(Schutz)가 지정한 “상호 조정 관계(mutual tuning-in relationship)” (슈츠, 1964)처럼 좀 더 근본적이고 공통/보편적이며 유형적인 인류문화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초문화적 조건이다. 동시에 각자의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관계를 창출할 수도 있다. 물론, 각 지역/국가적 차원의 수용에 대한 부담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새로운 혼합물, 즉 제3의 문화 창출의 가능성 역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보다는 초문화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초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의 전제인 구체적이고 고정적이며 전형적인 문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잠정적 결론

발표를 통해 필자는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의 과거와 현 상황을 논했고, 이러한 구상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통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은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 (2) 이 비전은 동아시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의 경계)
- (3) 마지막으로 환태평양 지역과 세계 전체를 향해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일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 (니시하라, 2019)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연대는 근본적인 상호주

관성에 기초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글로벌 영역에서 실천하는 초국가적인 지방적 세계시민주의(터너, 2006; 벡, 2002) 속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연대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이름의 실체가 있는 공동의 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우선 동아시아공동체의 비전과 관련해 본 발표에서 짚은 세 가지 요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번 포럼과 같이 평화와 공존을 위해 EAC를 논의할 수 있는 분야/장이 동북아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상은 본 발표의 잠정적 결론이자 일종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Okinawa, Military Bas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Kazuhisa NISHIHARA

(Professor, Seijo University / Professor Emeritus, Nagoya University)

Introduction

A new sociological association called “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 (EASN) was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March, 2019. As one of the board members, I organized a permanent research group named “Transnational Sociology” inside this academic association. At this EASN inaugural congress in Tokyo, two sessions of transnational sociology were held. They were “Transnational Sociology 1: Transnational Relationship in North East Asia,” and “Transnational Sociology 2: Social Sciences and Okinawan Issues.” About 10 sociologists from Korea, China, Taiwan, Japan/Okinawa participated and read their papers in these sessions. They were literally transnational and regional sessions.

As an organizer of these sessions, I said the following remarks at the begging of the first session.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drastically changing in a global age, especially people can easily cross some borders all over the world. These mobile people are changing society itself, so I noticed that the concept of society itself should be transformed. So for, society mainly means the society within the nation-state, but nowadays society itself crosses the national border……. Therefore, I think, sociology itself also must change. Ulrich Beck, a German sociologist, said in his book (Beck 1986), “Along with the de-tradition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rldwide media-network, each individual’s biography is set free from his/her immediate life-sphere, beyond the national boarder……While the national government acts within the frame of the nation-state, each individual’s biography is nowadays open to the world society: the world society is a part of his/her biography.” Furthermore, he added, “Positivistic Knowledge does only reproduce the past events ‘loyally.’ But, my [=Beck’s] statement follows another request: namely…attempting to take a newly emerging future into view.” So, I made up my mind to name these sessions transnational sociology, not international sociology or global Sociology. International

sociology tends to put the nation-states as main subject, and global sociology tends to grasp the world from bird's eye view. However, I want to focus on each individual living vividly in his/her lifeworld. Contemporary People are transnationally moving and transnationally getting a lot of informa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transnational sociology also tries to take a newly emerging future into view just like Beck's statement. It is so-to-speak future-oriented sociology!."

Well, this presentation of mine at Jeju University i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orientation. The aim is to discuss the future vision of North East Asian Societies from the viewpoint of transnational sociology. However, such a vision includes many things to be discussed. So, this time, I will aim to grasp the basic matters concerning Okinawan issues and the recent trends of discussions on the East Asian Community. It will be made, taking Jeju Island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these introductory statements, I'd like to refer to my own standpoint of "methodological transnationalism," and to try to discuss the perspective of "idealistic transnationalism" based on "empirical transnationalism."

1. Hawaii, Okinawa, Jeju,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Although I mentioned elsewhere many times (e.g. in my presentation in EASN congress), I will talk about Okinawan history very briefly. Okinawa was an independent country. However, Okinawa was annexed to Japan, and during the Asia-Pacific War, many Okinawan people died in the battle with the United States. Moreover, after the war, Okinawa was under American rule for twenty-seven years, and still seventy percent of the US military base facilities in Japan are located at Okinawa. However, about half of the people in Japan seem to accept the presence of the US military bases. What makes Japanese people think so? One of the main reasons for supporting such Japan-US policies originates from the political confrontations among North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I really think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in East Asia is one of most important ways to solve issues regarding the bases in Okinawa.

Nowadays, among East Asian countries, economic interdependence is high and socio-economic and socio-cultural exchanges among people are becoming considerably more active.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immigrants due to marriage, as well as overseas tourists are 'transnationally' moving across border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political-military conflicts by means of socio-cultural relationships is a matter worthy of investigation.”

Such a historical present in Okinawa also have similarities with one in Jeju and even in Hawaii. It is needless to say, these similarities are mainly in the following 10 points: besides having the similarity that these areas are 1) islands, these places were 2) once independent countries, 3) violently incorporated into the mainland, 4) once involved in war or civil war, and they are 5) now facing at the military base issues, 6) embedded in the US global military strategy, however, there are in these places 7) anti-base movements, 8) visions aiming at developing tourism policy, 9) aiming at being international cities, and finally 10) aiming at being islands for peace.

It will be clear that these similarities call for the peaceful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s of these areas. Well, what are the (social) movements going on in these areas? Let's look at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s, taking some examples in Japan and Okinawa.

2. Some Recent Visions discussed in Okinawa

Now, there are four main social movements as follows: 1) Constitution Movement: Draft of Constitution of Ryukyu Republic Societies represented by Shin-ichi Kawamitsu, 2) ACSILs' Movement: 'The Association of Comprehensive Studies for Independence of the Lew Chewans [=people in Okinawa],' :a new independence movement led by Yasukatsu Matsushima, 3) EAC Movement: East Asian Community (EAC) advocated by two main groups, Institution of EAC and Association of EAC. (As the forth important movement, I can point out 4) Anti-US Military Base Movements: moving the US Bases in Okinawa to the mainland Japan, criticizing severely "Japanese Colonialism," but I don't refer to this movement and other movements because there isn't enough time)

First, here, I can pick up an Okinawan intellectual's discourses. It is Shin-

ichi Kawamitsu's thought and especially his 'constitution draft,' which was written in 1981 and it was called "Draft of Constitution of Ryukyu [=old name of Okinawa] Republic Society." The discourses of intellectuals in Okinawa are still very stimulating and challenging. This constitution draft by Kawamitsu had an ideal transnational orientation, namely 'de-national' orientation. For example, he declared "abolishment of the

nation-state” in the first article of his draft, or he stated in Article 11 of his draft that not only people who live in Okinawa, but also everyone who agrees with the purpose of this constitution and wishes to become a member of the Ryukyu Republic Society, regardless of race, ethnicity, gender or nationality, can be qualified as the members of this Society (Kawamitsu 2010: 109). Kawamitsu thought that the national border was not so much meaningful, but a network society spreading to the world-wide was more important. (Cf., Ben Takara’s plan was named ‘Network Constitution of Ryukyu Federal Republic Societies which means network society without (geographically national) border (Kawamitsu, et al. ed., 2014)). Anyway, Kawamitsu’s plan tried to go beyond the notion of the modern nation-state itself (cf., Nishihara, 2010, 2018). In 1995, a girl rape incident by US Marine Corps occurred in Okinawa. This incident gave a great shock to the people of Okinawa that led to cuase extensive social movements against the US military bases. During these movements, above-mentioned constitutional draft in 1981 gained attention again. This constitution draft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lso in the 2010s and several books including this constitutional draft were published at that time (Kawamitsu 2010, Kawamitsu and Nakazato 2014). It was the tim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US forces were planning and finally trying to build a new base in Henoko, Okinawa.

Second, there is another important movement to seek independence. Y. Matsushima is a leader of this movement, he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2010 and organized ACSILs. He showed the following sentences in the Declaration: “In this year of 2010, we declare independence of Ryukyu as a Federation of Autonomous Republics of Ryukyuanesia [=Ryukyu Islands]. At present, the prefecture of Okinawa that is but 0.6% of the national landmass of Japan is compelled to host 74% of the U.S. military bases. Clearly, this is a discrimination……Ryukyuan [=Okinawan people] have continuously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bases since before the reversion of Ryukyu to Japan in 1972. But the bases still stand in proximity to Ryukyuan communities……. In order not to allow any more land of Ryukyu to be used for U.S. military basing, we declare independence from Japan. And on attaining independence, we will at once return the existing U.S. military bases to Japan.” In addition to this declaration, we can read the following sentences in this ACSILs’ Charter (issued in May 15, 2013). “... By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 and removing all military bases from our islands we Lew Chewan wish to achieve our long sought-after goal of becoming a sovereign island of peace and hope that exists in friendship with other countries, regions and nations of the

world…….We do not hesitate at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ce, but want to take it seriously as both an object of study and a political project.”

Third and final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East Asian Community, which is mentioned in the next section.

3. Recent Developments of the Visions for Regional Community in Okinawa/Japan

Here, I briefly review history of the discussion over the East Asian Community (EAC). In the field of thought of modern Japan, while intertwining with problematic “Asianism,” some orientations to the world were also seen, which occurred at the end of the Tokugawa period and in the age of the free civil right movement in Meiji era, and even as the theory of colonial management in the era of Taisho democracy. However, during the fifteen-year war (the Asia-Pacific War), very strong imperialistic idea of “East Asia Cooperative Community (東亞協同体)” with Japan as a leader came to the front. This idea should be critically considered as a negative legacy. After the war, through the time of “lack” of exchanges in North East Asia in the period of East-West Cold War, “exchange but conflict”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since around 1990 started. Thus, the problems of East Asia, especially of North East Asia, still exists for Japanese nationals as difficult ones to see under the Japan-U.S. core regime.

Therefore, the new discussions of Contemporary “East Asian Community” (東アジア共同体) have arisen from places other than Japan. The starting point was the advocacy of East Asia Economic Group (EAEG) by Prime Minister Mohamad Mahathir of Malaysia in 1990 (This EAEG was soon changed into the name of East Asia Economic Caucus in 1992). After that, the first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was held. Then, in 1997, the first “ASEAN+3” Summit was also held. In this period, the establishments of EU in Europe and NAFTA in the North America, and there were the development of Asian NEIS and the outbreak of the Asian currency crisis.

In Japan, the government-based East Asian Community plan (Japan took a main part of the initiative) started to move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 Council on East Asian Community (CEAC)” (President: Ex-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was founded in Tokyo in 2004 (Council of East Asia Community, 2010). However, these were

economic-based movement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significant movements occurring among Japanese intellectuals since this time.

When entering the twenty first century, Michio Morishima, Sang-jung Kang, and other Japanese liberal intellectuals began to speak seriously and positively about EAC. It was very impressive that Morishima,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London at that time,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EAC with the capital of Naha, Okinawa in his lecture in China (Morishima 2001). The idea of Kang Sang-jung's 'collaborative/ cooperative house in North East Asia' was also interesting (Kang 2001). Furthermore, other Japanese intellectuals also published their introductory books on EAC.

On the development of these Intellectuals' proposals, Yukio Hatoyama, previous prime minister of Japan, established "Research Institute for the East Asia Community in Tokyo (2013) and in Naha, Capital of Okinawa (2014), and Akira Kimura and others established "The Academic Society of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Okinawa (the Ryukyus)" in 2016, which includes many members from Matsushima's Association and Hatoyama's Institute. Originally and theoretically, constitutional draft movement and independence movement seen to have different vectors, but there are many common orientations, because they have peace-oriented thinking, unarmed orientations, anti-war thoughts and anti-base ideas.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the problems in Okinawa are not only local or national issues, but also regional or global issues.

So, what we want to know now is the discourses of intellectuals in other North East Asian countries (mainly in China, Korea, and Taiwan). Unfortunately, there seem to be not so many discourses there. Bai Young-Seo, South Korean historian, reflected on the possibility of EAC, and at the same time he asked whether Chinese intellectuals had the viewpoint focusing on East Asia. But, I can als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scholars: Sun Ge in China who often mentioned the dilemma of talking about East Asia and the negative legacy of the Japanese Empire, and Chen Kuan-Hsing in Taiwan who developed the theory of de-imperialization from Asia as method.

However, these movements at least in Japan have just begun. It is still unknown quantity how these movements will sprea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ther these movements will spread throughout (North) East Asia. At this point, it is encouraging that some researchers mentioned above in China, South Korea and Taiwan aim for the same direction. Although it cannot be said that they have the same thoughts, it is common for them in criticizing the problems of former (prewar period) imperialistic East Asian

Corporative Community (東亞協同體) by Japanese Empire and in trying to build a new community in East Asia as they severely criticize the current imperialistic movements.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no place where many researchers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liberal intellect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discuss the issues of EAC together. The creation of this place is also a major challenge for the future in East Asia.

4. What should be (re-)considered for future North East Asia?

As shown above, so-far main EAC trials were economic-based and Japanese Government-based movements. However, there were some significant movements occurring among Okinawan/Japanese intellectuals. Fir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their voices, and we should discuss the following points: 1) The East Asia Community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for political and economic side but also for social and academic side. And especially we hav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2) “Living Together or Conviviality” (共生) with people under different culture & system, 3) therefore, a kind of paradigm shift from international exchange to intersubjective exchange based on socio-cultural level among people in North East Asian Regions should be focused, and finally 4) last but not least,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se solidarities must be done in corporation with some parts of ASEAN + Trans-Pacific Area’s people and we should recognize that Okinawa and Jeju (and Hawaii) are very important key stones to combine these people together.

Recently the Okinawan governors who claim to reduce or eliminate the US military bases have been elected in Okinawa. However, both Japanese and US governments ignore the wishes of the governors and people in Okinawa. About half of Japanese people support such governmental policy.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such support, which I’ve already mentioned, is that the threat of China and North Korea would exist. Indeed, there are many confrontational relationships in North East Asia and its surrounding waters. Needless to say, there is a division line between the following two countries/areas: Russia/Japan, North Korea/South Korea, North Korea/Japan, North Korea/The US, South Korea/Japan, Okinawa/Japan, China/South Korea, China/Taiwan, China/The Philippines, China/Vietnam, and China/The US.

In order to solve the US base issues of Okinawa,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onflict relationships related to these dividing lines in this area. They come from the remnants of

the old Cold War regime and/or from the newly emerging Cold War system accompanied by the economical-political rise of China. The US military base issues in Okinawa is not only in local level or national level, but also regional level or global level.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base burden of Okinawa (and even of Jeju), a security system construction for peace is now required in this area. The economic dependence rate is very high in East Asia, but political relationship is very immature.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peace in this region is an important way to solve the base issues in Okinawa. To that end, a lot of dialogues beyond the nation-states will be required at least now among ordinary people.

Nowadays, cross-border interactions become in fact more active even outside the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They are realized by the mobilities of people and the exchanges of cultures beyond the nation-state (Nishihara 2019). Thus, national border is de facto overcome by a lot of people moving in this area. These people may create intersubjective relationships beyond cultural differences. Mutual communication cannot be a relationship based only on each original cultural background. It is based on more fundamental, common/universal, corporeal human culture just like “mutual tuning-in relationship” which Schutz pointed out (Schutz 1964). This is a kind of transcultural situation. At the same time, it can give birth to a new socio-cultural relationship which is beyond the individual original culture. Of course, there are various pressures to accommodation in each local/national level, but the possibility of the creation of a new hybrid, the third culture itself is also of another decisive importance. Therefore, I tried to emphasize that trans-culturalism is much important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or inter-culturalism. Transculturalism goes beyond the conception of reified, fixed, typified culture which multiculturalism or interculturalism presupposes.

Provisional Concluding Remarks

In my presentation, I argued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vision of East Asian Community and showed its significance even if it was just a part of this vision. The final results of my investigation are that

- (1) this vision should be discussed all over the Asia and by many people there
- (2) this vision should not be confined only in East Asia (regionalism!) and

(3) finally, it will be open also to Transpacific Area and to the world.

This seems to be contemporary situation and also shows a kind of limitation. Although I haven't touched it enough this time (cf., Nishihara 2019), theoretically stating, first, social solidarity is based on fundamental intersubjectivity, second, social solidarity should be actual in practicing transnational vernacular cosmopolitanism in the glocal area (cf., Turner 2006, Beck 2002), third, at the same time, social solidarity should aim to create a concrete common place called the East Asian Community. In North East Asia, for the time being, the vision of East Asian Community must be considered in the three points mentioned here, and the fields/places discussing EAC for peace and conviviality should be created in North East Asia just like this forum. This is a provisional conclusion and at the same time a kind of proposal for the future.

References:

- Beck, Ulrich,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Beck, Ulrich, 2002, *Macht und Gegenmacht in Globalen Aitalter: Neue weltpolitische Ökonom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Council of East Asia Community, 2010, *Higashi Ajia Kyodotai Hakusho (White Paper of East Asian Community)*, Tokyo: Tachibana-shuppan)
- Hatoyama, Yukio, et.al., 2014, *Higashi Ajia Kyodotai to Okinawa no Mirai (East Asian Community and the Future of Okinawa)*, Tokyo: Kaden-sha)
- Illich, Ivan, 1973, *Tools for Conviviality*, New York: Harper & Row.
- Kang, Sang-jung, 2001, *Touhoku Ajia Kyodo no Ie wo Mezashite (Towards collaborative/cooperative house in North East Asia)*, Tokyo: Heibon-sha.
- Kawamitsu, Shin-ichi. 1978, *Okinawa: Ne Karano Toi: Kyosei heno Katubo (Okinawa from the Fundamental Question: Craving for Conviviality)*, Tokyo: Tairyu-sha.
- Kawamitsu, Shin-ichi. 2010, *Okinawa Hatu: Fukki Undo Kara 40 Nen (From Okinawa: 40 years from the reversion movement of Okinawa)*, Tokyo: Sekai-shoin
- Kawamitsu, Shin-ichu. and Nakazato, Isao, eds., 2014, *Ryukyu Kyowa Shakai Kenpo no Sensei- ryoku : Gunto, Ajia, Ekkyo no Shiso (The Potentiality of Constitution of Ryukyu Public Society: Islands, Asia, and Thought of Transboundary)*, Tokyo:

- Mirai-sha.
- Matsushima, Yasukatsu, 2014, *Ryukyu Dokuritsu-ron (The Theory of Ryukyu Independence)*, Tokyo: Basilico.
- Matsushima, Yasukatsu and Ishigaki, Kinsei, 2010, 'Ryukyu Jichi Kyowakoku Renpo' Dokuritsu Sengen (The Federation of Autonomous Republics of Ryukyuanesia: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Kan: History, Environment, Civilization*, Vol. 42.
- Morishima, Michio, 2001, *Nihonni Dekirukotoha Nanika (What Can Japan Do?: Proposing East Asian Community)*, Tokyo: Iwanami-shoten.
- Nishihara, Kazuhisa, 2010, *Kanshukansei no Shakaigaku-riron: Kokka wo Koeru Shakai no Kanosei [1] (Sociological Theory of Intersubjectivity: The Possibility of Society beyond the Nation - State, I)*. Tokyo: Shinsen-sha.
- Nishihara, Kazuhisa, 2013, Phenomenological Sociology in Japan and its Significance for Contemporary Social Research,' in Elliott A. et al. (eds.) *Contemporary Japanese Social Theory: From Individualization to Globalization in Japan Toda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0-35.
- Nishihara, Kazuhisa, 2015, Après le tremblement de terre au Japon: la mission transnationale de la sociologie, *Socio: revue des 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Vol.5. Octobre, pp.65-79 .
- Nishihara, Kazuhisa, 2016, *Toransu-nashonarizumu to Shakaino Inobeishon: Ekkyosuru Kokusai-shakaigaku to Kosumoporitannteki Shiko (Transnationalism and Social Innovation: Cross-border international sociology and cosmopolitan orientation)*, Tokyo: Toshin-do.
- Nishihara, Kazuhisa, 2017, The Challenge of Okinawan Social Thoughts: Okinawan Glocal Network and Independence Movements after the Ryukyu Kingdom, ed. by Nishihara, K., *The Glocal Perspectives on the Contemporary Socio-Cultural Movements*, Tokyo: Center for Glocal Studies, pp. 41-52.
- Nishihara, Kazuhisa, 2018, *Toransu-nashonarizumu Josetsu: Imin, Okinawa, Kokka (Introducing Transnationalism: Migrants, Okinawa, and the Nation-State)*, Tokyo: Shinsen-sha.
- Nishihara, Kazuhisa, 2019, Intersubjectivity and Transnational Phenomenological Sociology: An Essay on Social Empathy in East Asia from the Viewpoint of Okinawan Issues,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1): 53-69.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Nishihara, Kazuhisa and Shiba, Mari, 2014,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in Japan:

- Toward the 21st century multicultural society, eds. by Kim, S. K., Le Pelin, Yazawa Shujiro (eds.), *A Quest for East Asian Sociolog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329–354.
- Nishihara, Kazuhisa and Shiba, Mari, 2016, New Emotion, Action and Recognition of Migrants and Mediator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oward a new sociological theoretical approach to multicultural situations in Japan,” ed.by A. Elliott and E. L. Hsu, *The Consequences of Global Disast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6–128.
- Schutz, A. 1964, *Collected Papers, II: Studies in Social Theory*, The Hague: Martinus Nijhoff.
- Shindo, Eiichi and Kimura, Akira, 2016, *Okinawa Jiritsu to Higashi Ajia Kyodotai (Autonomy of Okinawa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Tokyo: Kaden-sha.
- Turner, Bryan. S., 2006, *Vulnerability and Human Rights*,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Urry, John.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right, Erick, O., 2010, *Envisioning Real Utopias*, London and New York: Verso.

발 | 표 | 2

**제주 제2공항과 시민사회
그리고 헤게모니 투쟁**

**Jeju 2nd Airport, Civil Society
and Hegemonic Struggle**

장 훈 교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Jang, Hun-Gyo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the Research of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 제2공항과 시민사회 그리고 헤게모니 투쟁 Jeju 2nd Airport, Civil Society and Hegemonic Struggle

장훈교 Hungyo Jang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질문

제2공항 갈등을 둘러싼 연구들은 대개 (1) 현 갈등을 공공갈등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 갈등 관리의 시각이나 (2)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구조에 내재된 문제점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양분화된다. 두 연구는 모두 필요한 연구이지만, 현 갈등의 한 축 혹은 한 차원만을 다룬다. 제2공항 갈등은 제주 시민사회의 다원적 내적 균열과 접합되면서 표출되고, 이 갈등 과정 또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그 안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분석의 시각은 중요하다. 더욱이 시민사회가 “실제로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를 잠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된 장소”란 점을 기억할 때,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민주주의 비판은 시민사회 분석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제주 시민사회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헤게모니 투쟁(hegemonic struggle)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분석은 필연적으로 현 갈등을 통해 제주 시민사회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공공갈등 관리이론이 말하지만 직접 다루지 않았던 제주의 다원적 갈등 구조를 전면화하며, 국가와 정부비판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시민사회 비판과 시민사회 그 자체의 민주화란 문제설정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비판의 논의를 재구성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 제2공항 반대운동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분석 개념

1.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시민사회를 좁은 의미의 행정국가와 경제과정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삶과 시민사회를 동일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선 진 L. 코헨(Jean L. Cohen)과 앤

드루 아라토(Andrew Arato)를 따라 시민사회를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와 연동되어 있지만 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코헨과 아라토는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를 시민사회의 매개 영역으로 간주하며, 그 두 영역 모두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또한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를 모든 사회적 삶의 양식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제도화되어 있거나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회화의 구조, 결사체 그리고 생활세계의 조직화된 의사소통 형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코헨과 아라토의 시민사회 개념은 그 자체로 국가 및 경제와 시민사회가 대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대립은 시민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 및 경제가 분리될 때에만 발생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영향력이란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립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시민사회와 국가 및 경제와의 관계를 포착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2. 코헨과 아라토에 의존하면서도,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한다. 코헨과 아라토의 시민사회 개념을 주민사회와 도민사회로 분화시켜, 시민사회의 층위를 다층화한다. 코헨과 아라토가 전제하는 시민사회 개념은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라는 두 영역과의 구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모든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구체적 타자와의 관계와 일반적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결사와 소통의 양식과 사회화의 구조를 발전시킨다. 이는 다양하게 포착 가능하지만, 현재 제주 분석에선 이를 주민과 도민의 양 층위로 분할해 표현한다. 주민사회와 도민사회는 모두 제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한 층위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자율적인 동학을 갖는 것으로 전제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주민사회란 특정 장소와 결합해 그 장소에 거주하는 이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주민들의 결사로 이루어진 그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사회란 주민들의 관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민사회는 특정 장소와 결합되지 않은, 그 특징상 무장소성 혹은 전체 제주를 그 장소로 바라보는 이들의 관계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구분에 있어 핵심은 (1) 장소와의 관계 (2) 장소에 대한 이해와 감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시민에게 주민과 도민은 모두 주체위치(subject position)이며, 그 동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체위치들은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 주민으로서의 시민과 도민으로서의 시민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원적 주체위치의 구성은 해계모니적 구성을 따른다.

분석 방향

제2공항 추진은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란 명분 하에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채택되었다. 아래의 요구를 위가 수용하여 결정한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제2공항 추진이 실제 공표되자마자, 이에 반하는 제주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대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범도민행동 (2) 주민대책위 (3) 민중연대 (4) 천막촌. 반대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에 대응하는 찬성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청 앞에 현수막을 걸고, 공개 집회도 등장했다. 하지만 양 진영의 공개적인 충돌이나 갈등은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 양상은 영향력의 발휘를 통한 여론 주도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도민사회의 숙원 → 반대 시민사회의 능동화 → 찬성 시민사회의 능동화 → 잠재적인 여론 형성과 영향력 대결]의 도식으로 기본 정리한 이후, 이 기본 도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 혹은 기본도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주 시민사회에 접근한다.

과정 1: 도민의 숙원

1. 제주 제2공항을 수식하는 용어는 “제주 도민의 숙원”이었다. 숙원(宿願)은 말 그대로 오래된 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만들어진 염원이었다. 도민 전체의 이름으로 염원이 말하여지지만,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조정을 통해 구축된 합의는 아니었다. 오히려 숙원은 도민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상호 동의를 확보한 결과라는 이유로 민주적 과정을 우회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숙원의 토대가 되는 특정 조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오래된 상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물질 조건들에서 곧바로 현재와 같은 특정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숙원은 오래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상식에 특정 방향과 과제를 부여하는 ‘해석의 정치’ 산물이며, 도민 전체를 참칭하지만 특수한 해석을 전체에 부과하는 제주개발체제의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hegemony project)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숙원은 전체의 동의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전체의 동의를 동원하기 위해 위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2. 숙원은 명분(名分)을 제공한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구실이 되고,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관한 이유가 된다. 이런 명분은 두 가지 기능을 했다. 하나는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 근거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가가 지역 발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국책사업 유치는 지방정부들의 경쟁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임을 증명해야만 했는데, 이를 그 사업이 오랫동안 지역 시민들이 염원하던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이는 제주만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의 모든 지방 정부들은 지역 숙원 사업을 만들어냈고, 이를 위해 연 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가공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제주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근거이자, 그 특정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불만을 헤게

모니 프로젝트를 통해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상식을 재구성한다. 이때 단지 상식을 지식 재구성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숙원은 말 그대로 하나의 염원이란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이 열정이 없다면 상식의 재구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 열정이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다.

3. 그러나 제주개발체제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현실에선 매우 제한적으로만 작동되었다. 전체 도민을 내세웠지만, 그 실제 구현 과정은 두 도민 프로젝트(Two Citizen Project)였다. 제주개발체제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반대세력을 그 안으로 통합하려는 적극적인 민주적 노력을 전개하지 않았다. 반대를 배제하는 두 도민 프로젝트는 (1)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동시에 (2)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와 일상생활의 간극으로 인해 언제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3) 또한 민주화 이후 성장한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불만과 숙원과의 관계에 도전하는 외부담론을 형성하고 펼치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숙원으로서 제2공항 프로젝트는 그에 필요한 아래로부터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필요 수준 이상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갈등의 강도와 규모를 확장했다. 시민사회 안에선 이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제2공항은 헤게모니투쟁(hegemonic struggle)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과정 2: 반대 시민사회와 저항의 양식들

1.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시민사회의 부활로 연결될 때, 시민사회는 강했다. 곧 운동이 존재할 때, 시민사회는 강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서 시민사회는 (1) 민주화운동의 탈동원화와 독자적 시민운동 집단으로 분화 (2) 내적 분화 (3) 시민운동과 구별되는 다양한 유형의 또 다른 시민사회와 대면하게 되었다. 최장집은 이를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로의 이행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은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연원하는 시민운동의 탈동원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방식은 제주 시민사회의 설명에도 일정한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제주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의 사회가 아니라, 그 보다 넓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념, 열정을 통해 형성된 자율적 시민결사체들의 관계이다. 시민운동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 일부가 전체 도민사회를 대표하기 위해선 역시 헤게모니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2. 범도민운동의 헤게모니 투쟁은 제주개발체제의 제2공항 안을 비판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합리적 대안의 제시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이는 제주 도민운동만의 특징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서 한국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분화 과정에서 민주적 정책 경쟁을 위한 정책 비판과 감독, 대안 정책 제시의 영역으로 자신을 전문화시켜왔다. 이는 동시에 직접행

동에서 공론장 중심의 운동 형태로의 전환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민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시민과 분리된 시민운동의 탈동원화 과정을 강화했다. 범도민운동은 미디어를 매개로 정책 대결을 위한 합리적 토의의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범도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잠재적 수준 곧 일상생활 안에서 조직되는 의사소통에 외부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런 잠재성을 직접행동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인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다. 제주 도민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1) 시민사회의 중립화 (2) 시민사회의 위탁사업화 (3) 시민사회의 국가화라는 경향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현상들의 역설은 이 현상 모두가 시민사회의 전문화와 공적 영역과의 중첩 과정 곧 시민사회의 일정한 영향력 발전 및 강화/제도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강한 영향력, 약한 행동력을 도민사회가 형성되었다. 무엇보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이른바 제4섹터가 탈정치화되었다.

4. 주민사회의 경험적 문제 중 하나는 갈등이 주민사회의 문제로 규정되는 순간, 다른 주민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해당 주민사회 문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주민사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주민사회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장소 기반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경계가 부분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는 강한 주민사회의 토대가 되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된 원자적 주민사회의 구조를 발생시킨다. 이는 범도민운동의 동원 구조와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주민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존재할 때, 이 대응은 도민사회의 정치적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주민사회의 대응이 분열적일 때, 도민사회는 이 문제와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주민사회 또한 주민공동체라는 우리의 지배적인 관념과 달리 ‘주민사회 대 주민사회’의 대립양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민사회 일부는 제주개발체제의 하위체제로 편입되어 있고, 그 개발이익의 하위 분배가 도전받게 되는 상황에선 직접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들은 갈등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주민사회만의 문제로 갈등을 규정하고자 하였고, 시민사회는 그 외부로 배제하고자 했다. 이런 조건에서 도민사회는 주민사회에 비해 약한 구조를 가지며, 제주도 내의 다양한 균열과 상대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5. 2019년 2월 16일 제주민중연대가 출범했다. 이들은 (1) 영리병원 철폐 (2) 제2공항 반대 (3)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했고, 이를 위한 제주지역 농민, 노동자, 민중단체들의 연대를 선언했다. 제2공항과 영리병원 철폐를 그 현안으로 제시했으나, 제주민중연대의 지향은 “민중의 희망세상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들의 목표처럼, 단기적 사건 대응을 넘어 제주 전체의 전환적 변화에 있었다. 이와 같은 제주민중연대 구성 제안은 이미 2000년부터 나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구현된 것은 2019년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제안된 제주민중연대 토론 제안문을 보면 시민운동과는 결을 달리하는 민중운동의 발전을 위한 전선운동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준에선 수사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제주 전체의 총체적 전환을 구호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 운동 수준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이름으로 각 계급의 물리적인 이익 방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민중운동이 민중을 호출하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할 독자적인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6. 천막촌은 김경배 씨의 ‘단식’ 천막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단식은 주민사회와 도민사회에서 일관된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구조는 이후 다른 천막들이 들어서고, 김경배 씨를 포함하지만 그로 환원되지 않는 천막연합으로서의 ‘천막촌’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김경배 개인의 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식 농성이란 직접행동이 주민사회와 도민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의 구조와 중첩된 문제란 점에서 제주 시민사회의 특성이기도 했다. 2019년 1월 7일 도청 앞 녹색당 천막과 단식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는 역설적으로 천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천막들이 단식 농성 천막 옆에 들어섰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 의한 단식 농성이 계속되었다. 단식 농성이 종료된 이후 천막촌은 단식과 분리되었다. 이는 천막촌이 일종의 일상화 국면으로 진입하는 걸 의미했다. 이는 식사의 변화에서 무엇보다 먼저 드러났다. 단식이 아닌 함께 하는 식사가 등장했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음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동방식을 변경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천막촌은 변경(邊境)의 운동 양식이었다. 주민과 도민 사이에서 유동하는 제3의 시민들이 천막촌에 결합했다. 이들은 주민사회와 도민사회 모두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로 환원되지 않는 이들이었다. 주민과 도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주민과 도민 모두를 뛰어넘는 질문으로 운동의 다른 경로를 모색하는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과정 3: 찬성 시민사회의 능동화

1. 제2공항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을 ‘침묵하는 다수’ 중 한 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끄럽지만’, 그들은 소수라고 본다. 단지 ‘시끄럽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주목받을 뿐이다. 또한 “반대 측에 제주도민이 아닌 외부 세력까지 가세하다보니 피로감이 더 크다”고 말하기까지도 한다. 찬성 시민사회의 주요 동력은 이런 점에서 두 가지였다. (1) 침묵: 바꾸어서 말하면, 침묵은 언제나 다수를 만든다. 따라서 침묵을 유지한다. (2) 반대와 외부세력을 연결시킨다. 이는 제주도민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대 도민사회가 언제나 정체성의 질문에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침묵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이다. 침묵은 언제나 다수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제나 ‘다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제2공항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일부’ 혹은 ‘예외’의 문제 곧 소수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그 소수의 반대자들은 제2공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거나,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모든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항상 반대만 하는 이들로 보인다.

2. 하지만 찬성 시민사회를 단지 침묵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찬성 시민사회는 거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결사체들이 압력과 로비를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압력과 제주도의 공권력이나 관료기구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익결사체와 관료기구와의 결합이 비공식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다. 하지만, 압력과 로비 등으로 제주도정과 국토부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제주 찬성 시민사회도, 2017년 3월을 경유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따라 동원되고 결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범추협’의 재등장은 그 신호탄이었다.
3. 찬성 시민사회는 반대 시민사회보다 보다 분명하게 경제사회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범추협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모가 이를 잘 보여준다. 관광, 건설 등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청년회 등 사회단체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 대표단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관광협회, 재외제주도민회, 제주도여성단체회 등이었다. 제주 경제구조의 변동 과정은 시민사회의 제2공항 갈등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관광 관련 이익결사체들이 그 전면에 배치된 것은 현 제주 경제구조를 이해할 때,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주요 부문은 건설업 관련 이익결사체들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이들은 모두 건설 경기와 직결되어 있었다. 건설업 노동자들은 관광객이나 인구순유입 등이 감소하면 도내 건설수요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의 제2공항 추진 촉구는 이런 불안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찬성 시민사회에는 물리적 이해관계가 분명했다. 그러나 단지 물리적 이해관계만은 아니다. 그에 대한 열정과 불안한 삶의 현실이 공존한다. 이와 함께 주민사회의 움직임도 더욱 가시화됐다.

과정 4: 영향력의 대결과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1. 국가와 제주도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범도민운동은 정치사회의 압박을 위해,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식에 균열을 내고, 그 영향력을 가시화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흐름이 현재 공론조사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과 성산읍반대대책위는 도민 공론조사 수용을 그 처음 단계부터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들어 더불어민주당, 국토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검토위 재구

성 및 공론화에 합의한 이후 더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현재에 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론절차를 밟는 것은 일관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거부했다. 도의회 곧 정치사회 안에서도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2. [여론조사 → 공론조사]로 나가는 과정은 제주 도민사회가 시도했던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여론조사는 미약하고, 주민소환은 힘들지만, 공론조사는 한 번의 승리 경험을 갖고 있는 모델이었다. 범도민운동은 현재 도민사회의 의견을 3가지로 압축한 바 있었다. (1) 현 공항을 개선하여 확장 필요 폐기 (2) 복잡 불편 해소를 위해 공항 확충 필요 (3) 제주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2공항 건설. 범도민운동은 이 3가지 안에 대해 “도민사회의 의견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대안은 ‘공론조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공론조사가 모든 시민사회운동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대안이다. 제2공항 프로젝트를 현실적으로 중지시킬 압도적인 시민사회의 물리적 동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한 공론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이를 대체할 대안 또한 없는 상황이 공론조사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있다.

결론

1. 공항 문제는 단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 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 통치의 일부를 이루는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많은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관계하는 다층적인 실천의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사회의 내적 균열은 헤게모니투쟁의 대상이며, 따라서 이 균열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내는가는 제2공항을 둘러싼 헤게모니투쟁의 중심 문제가 된다. 제주 시민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따라서 자신 안의 균열과 갈등을 제주개발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종합하는 대안 접합의 양식을 발전시키는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구현에 있다.
2. 그러나 현재 제주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정치에 대한 합리주의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어,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또 다른 차원이 배제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에 있어 ‘열정’이 차지하는 차원이다. 또한 이 열정은 제주 시민사회의 비공식적 관계와 규범들에 의한 일정한 갈등 관리의 구조 하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도민운동의 강력한 합리주의적 정치 이해와 제주 시민사회의 비공식적 갈등 관리 구조 속에서 ‘열정’이 이중배제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열정의 배제는 무엇보다 리더십(leadership)에 대한 억압과 대안 정치정당의 주변화를 낳았다. 리더십과 정치정당은 구별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열정의 정치적 동원과 정치적 동일시의 문제이다. 제주 시

민사회에서 대안 정치정당은 그 안에 위치해야만 하며, 그 밖으로 나갈 때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현재 녹색당의 상황은 이를 보여주는 예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제주개발체제에 도전하는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정치사회운동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제2공항과 같이 강력한 강도와 넓은 규모를 가진 갈등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전체 도민에게 다른 정치사회적 선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제주시민사회의 최대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안 문제로 보인다.

Jeju 2nd Airport, Civil Society and Hegemonic Struggle

Hungyo Jang

SSK Research Center on the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

Research question

Most of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conflict over the 2nd Jeju Airport reflects two different perspectives: 1) viewing the issue as a public conflict through the lens of conflict management theory and 2) revealing and criticizing the structural problems concerning the democracy of state or local government-led projects. Although both approaches are needed, they address only one of the axes or dimensions of the conflict in question. Criticizing Jeju civil society from an appropriate perspective is important because the conflict over the 2nd airport has been manifested in close connection to the multifaceted fragmentation of the local civil society. Furthermore, the conflict process has also involved responses from the different civil social sectors. The civil society is the “key domain with the potential of upscaling democracy under the existing liberal democratic system.”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te of democratization within the civil society itself in parallel with criticism of the nation’s Land Ministry and the Jeju governm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topic from the perspective of ‘hegemonic struggle’ to explain how the conflict over the 2nd airport has developed within Jeju civil society. This is an inevitable process in understand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society through the ongoing conflict issue. Taking the said perspective will enable this paper to cover the multifaceted structure of the Jeju conflict in its entirety, which preceding research failed to address directly, instead only referencing it. This approach will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titute the criticism and the discussion of democracy since civil society and its democratization are also subject to criticism just as the nation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Most importantly, it will enable a more concrete and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nti-2nd airport movement.

Analytical concepts

1. People generally equate the concept of a civil society with the entire social life that exists outside an administrative state (in a narrow sense), or with the economy. However, this paper refers to a civil society as being different from a political or an economic society (though interconnected) by applying the concept developed by Jean L. Cohen and Andrew Arato. Cohen and Arato perceive political and the economic societies as mediators of civil society and as being originally rooted in civil society. The two also use the concept as an institutionalized structure of socialization (or socialization under institutionalization), an association, and an organized form of communication in the life-world. This means that they consider it something inequivalent to the entire types of social life. Finally, they do not assume that the civil society by nature is in conflict with the state power or the economic sector. Conflict occurs only when the state power or the economic sector exists separately, free from the influence of civil society. Therefore, Cohen and Arato's concept will be helpful in grasp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erms of influence and in realiz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state power or the economic sector, which is not reduced to the confrontational one.
2. In this paper, dependence on Cohen and Arato's concept is complemented with the following measure: the stratification of the civil society into the residential society and the local society. Cohen and Arato's concept of civil society places the sole importance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olitical society and the economic society. However, citizens engage in different types of associa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different structures of socializ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ir relationship involves specific 'others' or general 'others'. Of the diverse options in grouping the local society, this paper selected the dichotomy of 'residency' and 'locality'. The residential society and the local society respectively constitute a stratum of Jeju civil society. The premise of this paper is that they possess autonomous dynamics as being interconnected but distinctive from each other. The term "residential society" here refers to the relationship of people based on the association of those residing in a certain 'place'. Alternatively, the residential society can be called the connectivity of relationships of residents. On the

contrary, the local society presents no linkage to the 'place'. By nature, it refers to the connectivity of relationships of those irrelevant of the 'place' or those viewing the entire Jeju Island as that 'place'. Accordingly, the distinction is based on two key points: 1) the relationship with linkage to the 'place' and 2) the understanding and the sense of the 'place'. When relating to a citizen, the status of a 'resident' and that of a 'local' both enjoy a subject position. However, their different dynamics might lead to the confrontation of the two subject positions because the citizen as a resident and as a local may have different stances. The multifaceted subject positions are formed, following the hegemonic formation.

Analytical orientation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was adopted with a top-down approach by the state with the pretext of promoting the 'long-cherished wish' of the Jeju locals. Officially, the project was expressed as the result of a bottom-up decision. Before long, however, it turned out to be an incorrect account because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roject immediately aroused an organized backlash from the Jeju civil society. So far, the anti-2nd airport respons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1) taking a pan-local action, 2) forming the residents' task force, 3) building the people's solidarity, and 4) building a 'tent village'. As the organized responses by the opposing civil sector exert a certain degree of influence, the pro-2nd airport movement has become visible as well. Placards are hung in front of the Jeju provincial office building, and public rallies take place. Nonetheless, no collision or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has been expressed publicly. Rather, each side entered into the phase of attempting to lead the public opinion by exercising their respective influence. To approach the local civil society issue, this paper schematized the responses in the process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long-cherished wish of the local society → the activation of the opposing civil society → the activation of the approving civil society → the formation of tentative public opinion and the confrontation through influence. It then complements the formula by adding what remains unnoticed and revising what requires reinforcement.

Process 1: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long-cherished wish’ of the local society

1. The rhetoric used for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was the “long-cherished wish of the Jeju locals.” The “long-cherished wish” literally means something that has been wish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project was promoted mainly based on this rhetoric. However, it was a kind of manipulated wish. Although the ‘wish’ was publicized in the name of the entire local community, the consensus process actually failed to undergo joint coordination through democratic engagement. Rather, the ‘long-cherished wish’ approach circumvented the democratic process as it was misinterpreted as the result of years of a mutual consensus process among the locals. Admittedly, it is true that there exist certain fundamental conditions of the said wish, as well as the long-standing ‘common sense’ of civil society surrounding those conditions. Nevertheless, no specific conclusion such as the project in question can be inferred directly from the said physical conditions. In this regard, the ‘long-cherished wish’ is the product of a ‘politics of interpretation,’ which creates a certain orientation and a task built upon the common sense that was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project can be referred to as a ‘hegemony project’ of the Jeju development regime which claims to advocate the wish of the ‘entire Jeju local community’ but in fact applies the interpretation of a particular case to the entirety. In other words, the ‘long-cherished wish’ was created not based on the consensus of everyone, but by the upper level decision-makers who wanted to mobilize the consensus.
2. Over the past years, the rhetoric of ‘long-cherished wish’ turned into a ‘cause’: a cause which gives an excuse for that ‘wish’ and the reason for its necessity. Such a cause has two functions: 1) It provides a ground for attracting national projects to a specific region. How effectively the region can draw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has emerged as a core variable of regional development. Eventually, attracting national projects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win a state-funded project, every local government has to prove that they are in essential need of the project for their regional development. As proof of that necessity, local governments have claimed that their citizens have had a ‘long-cherished

wish' for the given projects. This is what happened in Jeju and in many other regions.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nation, every local government created their respective 'long-cherished regional projects.' To this end, they conducted research through research services agreements and embellished the research findings as policies. 2) The other function of a cause is that it works as the grounds to persuade local civil society (just as in Jeju) to support a certain project and makes it legitimate to promote the project. Civil society interprets its discontent through hegemony projects to restructure its common sens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is restructuring process means more than just the reorganization of its knowledge. The long-cherished wish—being a wish, literally—evokes a kind of political passion. Without this passion, the restructuring of common sense would not occur. When a hegemony works, it means that the hegemony is combined with passion.

3. In fact, however, the hegemony project under the Jeju development regime has worked very limitedly. Although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was launched in the name of the 'entire locals,' it actually has been materialized as the 'two citizen project.' The Jeju development regime made no active democratic effort to embrace the opposing power. Excluding opposition, the two citizen project 1) circumvented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2) always showed limits due to the gap between the 'mega-project' and everyday life. Moreover, 3) civil society and civic movements that have advanced since the nation's democratization created and developed an external discourse, challeng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discontent of civil society and the long-cherished wish. Consequently,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as a long-cherished wish has failed to draw as much active, voluntary consensus as needed in the bottom-up manner. This enlarged the intensity and the scope of conflict. A resistance movement began within civil society, and that is why the 2nd airport issue entered into the phase of hegemonic struggle.

Process 2: Types of resistance from civil society

1. When the energy of the nation's democratization movement led to the resurrection of civil society, the revived civil society became even stronger. In other words, civil society is powerful when there exists a movement. After the national democratization, however,

civil society 1) was no longer mobilized for any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transformed into another civic movement group; 2) underwent internal fragmentation; and 3) faced another type of civil society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involved in the initial civic movement. Choi Jang-jip described it as the transfer from a civil society against the state to a civil society versus another civil society. The core of the transfer is not to mobilize the civic movement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e. democratic de-mobilization of the civic movement). This account appears to be valid in describing Jeju civil society. Jeju civil society is not a civic movement-based society, but a group of related civil organizations that were formed autonomously based on broad senses of interest, notion and passion. A civic movement is only part of its activities. In order for that part to represent the entire local society, Jeju civil society would need to stage a hegemonic struggle.

2. The hegemonic struggle of the pan-local movement placed importance on presenting a reasonable alternative measure for critically invalidating the 2nd airport bill promoted by the Jeju development regime. The pan-local movement in Jeju is not the only movement with this feature. Since national democratization, the nation's civic movement has specialized in criticizing and monitoring government policies and suggesting alternative options, to compete for democratic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paration from the people's movement. It also included the transformation from direct action to the movement centering on the forum of public opinion.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vic movement strengthened the process of its 'de-mobilization' by taking separate steps from the existing civil society. The pan-local movement has been somewhat successful in continuously expanding the forum of rational discussions for policy competition through media. This helped the pan-local movement contribute to introducing external discourses to the potential of communication of civil society, namely, the communication during everyday lif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related to the reason why there have been limited direct actions induced by that potential. Over the past 30 years, Jeju civil society has been exposed to the trends of 1) neutralization of civil society, 2) subcontractor roles of civil society and 3) nationalization of civil society. The paradox here is that all of the trends are connected to the specialization of civil society and its overlapping domain with the public realm; that is, the advanced leverage and the strengthened/institutionalized structure of civil

society. This process eventually formed a more powerful local society with a weaker will to take action. Above all, the so-called ‘broad-scale 4th sector’ that emerged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as been de-politicalized.

4. The residential society has an empirical issue: When a conflict is defined as a problem of a certain residential society, no other residential societies or even civil society can engage in their problem. The reason lies in the fact that a residential society basically exists as an independent community built based on the concept of ‘place’ and that it has quite clear boundaries of that place. Although this serves as the foundation of a powerful residential society, it also creates the structure of ‘atomic’ residential societies that exist separately from one another. It even affected the structure and the capacity of the mobilization of the pan-local movement. The intensive response from the residential society involved in the issue provided a driving force for the political passion of the local society. Adversely, however, when the residential society expresses fragmented responses, the local society tends to keep a distance from the issue. Significantly, the confrontation of ‘a residential society versus another residential society’ has overwhelmed the predominant notion of residential society or residential community. The residential societies are now partially incorporated as the sub-structure of the Jeju development regime, and have emerged above the surface when the sub-structural distribution of the development benefit is challenged. To curtail the scope of conflict, the residential societies attempt to define the conflict as the issue that belongs only to themselves, excluding other civil social secto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local society formed a weaker structure than that of the residential society, while being relatively separated from the diverse types of fragmentation happening in Jeju.
5. On Feb. 16, 2019, the Jeju people’s solidarity was launched. They called for 1) the revocation of the For-Profit Hospital Project, 2) the annulment of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and 3) the resignation of Jeju governor Won Heeryong. To achieve those goals, the Jeju-based farmers, workers and people’s associations declared solidarity. Despite having the afore-mentioned goals, the ultimate orientation of the Jeju people’s solidarity was more than just a response to a one-time event: They wanted to bring a transitional change to the entire province of Jeju, as expressed by their slogan, “Turning toward the hopeful world of the people.” Supposedly, the proposal for the Jeju people’s

solidarity was first made in 2000, but the idea was finally realized in 2019. The 2000 proposal for the discussion of the people's solidarity indicated the goal of stating a 'front' mov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 people's movement, which is different from civic movement in texture. Currently, however, the goal appears to function only as rhetoric. It is because despite the catchphrase calling for a full-scale change, the actual movements have concentrated on defending the physical benefits of each social class in order to 'win the people's right to live.' To put it in another way, the people's movement summons the people but fails to develop an independent hegemony project to realize the idea of a movement.

6. The 'tented village' started with Kim Kyung-bae's 'hunger struggle' tent. The residential and the local societies expressed no consistent response to Kim's struggle. Supposedly, the same process applies to the establishment of other tents as well as the 'tented village' as the association of the tents, whic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Kim Kyung-bae's tent. Although this issue is partially related to Kim's individual status, it is also a feature of Jeju civil society, which involves the residential and the local societies who accept direct action of hunger struggle. On Jan. 7, 2019, the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was carried out on the tent of the Green Party Korea and the hunger struggle tents that had been set up in front of the Jeju provincial office building. Ironically, however, the protesters gained momentum to expand their tents after the execution. A variety of other tents were built around the hunger struggle tents, followed by additional hunger struggle actions. After the end of the hunger struggles, the tented village was separated from the hunger struggle protesters. This means that the tented village entered into a phase of 'daily life'. The change was most noticeable in the change of meals. People hungered no more but ate together. Dining together means that the method of movement has to be altered from creating a space of dying to creating a space of living. Most importantly, the tented village became a movement of the peripheral social sector. A third-type of citizen floating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locals gathered in the tented village. These third-type citizens were connected to both the residential and the local societies, but not reduced to them. Their location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locals rather enabled them to pose questions beyond the respective one-sided views. Thusly, they have attempted to form an independent flow, tapping another direction for the route of the movement.

Process 3: The activation of the approving civil society

1. Many of those who support the 2nd airport project consider themselves as one of the many ‘silent majority’. They regard those against the project as the ‘noisy minority’. From their perspective, the opponents have their voices heard simply because they raise their voices. Some supporters even claim that they feel more irritated by the non-local external forces joining the opponents. In this sense, the approving civil society has two key impetuses. 1) The first impetus is silence. Silence always creates the majority. Therefore, they remain silent. 2) The other impetus is the opponents’ connectedness to the external forces. This implies that the issue is interfered with the locality. In other words, the local society is always exposed to the question of identity. Silence is a core technique with which a member of the Korean civil society can protect himself/herself because silence enables them to take the stance of the majority in any case. Since their stance as the majority, the silent supports always understand the resistance against the mega projects (e.g. the 2nd airport project) as the ‘partial’ or ‘exceptional’ issue, namely, the minority issue. They view the opposing minority as having a misled belief or denying whatever information there is, for whatever reason they can find.
2.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ilence is not the only approach taken by the approving society. Though rarely revealed, a diversity of interest-oriented associations exerted pressure on and performed lobbying activities for the 2nd Jeju airpor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ressure and the local public authority or bureaucratic organs. Nevertheless, many have testified that the combination of interest-oriented associations and bureaucratic organs have unofficial influence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reviously, the approving society saw no necessity to form an association because their interest was represented through pressure and lobby by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nation’s Land Ministry. Since March 2017, however, association of the approving civil society has been built based on their economic interest and ideological foundation. The first signal was the reemerging of the Pan-Loc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2nd Jeju Airport (hereinafter called the “2nd Jeju Airport Promotion Association”).

3. The approving civil society reveals connectedness to the economic sector more clearly than the opposing civil society. It is evident in the member organizations of the 2nd Jeju Airport Promotion Association, which consists mainly of economic organizations featuring tourism and construction, as well as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local Young Men's Associations. The delegation included the Jeju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Jeju Provincial Tourism Association, Jeju Expats Association, and the Jeju branch of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Women. The transformation of the local economic structure had an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conflict in the Jeju civil society over the 2nd Jeju airport. Given the current economic structure, it might sound natural that the interest-oriented associations on tourism spearheaded the activation of the approving civil society. Construction-related associations also took the leading role. The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Korea Federation Readymixed Concrete Industry were all directly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workers worry that the decrease in the visitors or in the net population inflow could possibly shrink local demand for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Workers' Union called for the promotion of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due to their anxiety. In this sense, it was evident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approving civil society was based on physical interests. However, physical interests is not the only fundamental of their relationship. There coexist their passion for the project and the reality of their shaky living conditions. With their activation, the residential civil society became even more visible.

Process 4: The confrontation through influence, the democracy through other means

1. To influence the state and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the pan-local movement has aggressively used opinion polls. They could put pressure on the political society through the strategy of cracking the common sense of the local civil society and making their influence more visible. Such a move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demand for a deliberative opinion poll. Since the project was announced, the Pan-Local Association Against the 2nd Airport and the Seongsan Village Anti-2nd Airport Task Force have

consistently demanded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hold the deliberative opinion poll. They have doubled their effort since April 2019 whe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Land Ministry and the Seongsan Village Anti-2nd Airport Task Force agreed to reconstitute the Review Committee and hold a deliberative opinion poll. However, the Jeju government refused to hold the poll for its insistency, claim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promoted project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government. Currently, the demand for the deliberative opinion poll is coming from Jeju provincial council, namely, the political society.

2.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poll → Deliberative opinion poll] is also related to the recall of the elected provincial governor that the local society tried 20 years ago. Although the public opinion poll has an insufficient influence and the recall is difficult to proceed, the local society has experienced victory in terms of the deliberative opinion poll. The pan-local movement has summarized the current public opinions as three main claims: 1) The necessity for airport expansion should be removed by advancing the existing airport facilities; 2) Enlarging the airport is necessary to reduce inconvenience due to complexity; 3) The 2nd Jeju Airport should be constructed to expand tourism development for regional advancement. It is the pan-local movement's judgment that the three claims are "distributed in the local civil society to the similar extent." They emphasize that the conclusion of the conflict requires an alternative option to which the absolute majority can agree. And their answer to the alternative option is the deliberative opinion poll. However, not all of the civil social movements showed consensus for the poll. What concerns us is the other alternative. Currently, Jeju civil society has not proved overwhelming capacity to physically suspend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nor developed any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option for the potential flaws of the deliberative pol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nternal conflict of the civil society over the poll has remain unresolved.

Conclusion

1. The 2nd airport issue has been expressed in a series of multifaceted practices where innumerable agents are intrinsically interrelated, revolving around a certain project which

forms a part of the governance that can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confrontation of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e internal fragmentation of the civil society is subject to hegemonic struggles, so that how to consolidate the fragments is the key issue of the hegemonic struggle for or against the 2nd airport. Therefore, Jeju civil society is now faced with how to materialize the resistant hegemony project. During the project, it should be able to develop the formula of creating an all-inclusive alternative which resolve the internal fragmentation and conflict in the manner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Jeju development regime.

2. However, the current hegemony project of the Jeju civil society is based on the rational understanding of politics. As a result, it excludes other dimensions that are also part of the hegemony project, namely, the dimension of ‘passion’ in the politics. Moreover, this passion appears to be not considered in the conflict management structure that is formed by the unofficial relations and the norms within the Jeju civil society. In other words, a two-fold exclusion of ‘passion’ can be seen in the intensively rational understanding of politics of the local civic movements, and in the unofficial conflict management structure of the Jeju civil society. Above all, such an exclusion resulted in the pressure placed on the leadership and the peripheralization of the alternative political parties. Ostensibly, the leadership and the political parties appear to be separate from each other. However, they together consist a single issue, that is, the political mobilization and the political equation of passion. In the Jeju civil society, alternative political parties should exist inside the society and face severe limitations when outsid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reen Party Korea can be reviewed as an example. The afore-mentioned issues hindered the formation of a significant, materialistic sociopolitical movement which could challenge the Jeju development regime. In other words, no phenomenon has occurred where an intensive, broad-scale conflict (e.g. the conflict over the 2nd airport) is developed into a mass movement, based on which an alternative sociopolitical option is presented to the entire Jeju locals. In this context, the most urgent challenge for the Jeju civil society is to create a new leadership.

토 | 론 | 문

이 명 원(경희대 교수)

Lee, Myung-won(Professor, Kyunghee Univ.)

최 진 석(일본 히로시마대 교수)

Choi, Jinseok(Professor, Horosima University)

정 영 신(도청 앞 천막촌 연구자공방 연구자)

Chung, Young-Sin(Researcher, Research
Workroom of Citizen's Tent Village)

이명원(경희대학교 교수)

LEE Myung-won(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니시하라 가즈히사 교수님의 「오키나와, 군사기지, 동아시아 공동체」를 잘 읽었다. 글로벌 리제이션의 과정 속에서, 국민국가를 넘어선 트랜스 내셔널한 교류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동아시아 시민들의 교류와 연대, 공존의 형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중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해서 소개한 새로운 운동과 실천의 경우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하며, 오키나와 제주의 연대를 요청하는 주장 역시 경청할 만하다고 느꼈다.

니시하라 교수의 제안을 실질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부상하는, 혹은 잔존하는 패권주의가 종식되어야 한다. 전전(戰前) 일본의 동아협동체론 및 현재의 미-일 안보체제, 중국 시진핑 체제 하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군사적·경제적 패권/헤게모니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갈등 근거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 체제’의 긴장관계가 충분히 사유되어야 한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 시절, 동아시아 중시 정책은 역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미국 없는 동아시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명백한 패권/헤게모니 성격을 부각시켰다. 셋째, 중국·북한위협론의 과장된 안보담론이 증폭되는 한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갈등과 ‘분단선(分斷線)’이 해소되기 어렵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역내 국민국가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어야 한다. 중국과 북한에서야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시민사회가 부재하거나 미약한 ‘민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활발한 시민사회의 활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강도는 다르다. 특히 일본의 시민사회가 우경화하는 아베 정권을 견제하거나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면, 오키나와 문제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공허한 담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니시하라 교수의 생각을 듣고 싶다.

다음으로 장훈교 선생의 발표문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제주의 정치공간의 다양성을 확인한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제주 시민사회를 (1) 범도민행동 (주민대책위) (3) 민중연대 (4) 천막촌으로 분류하고, 찬성시민사회의 침묵의 의미를 ‘헤게모니(암묵적 동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발표를 읽으면서 나는 제주의 공론장이 일종의 내부/외부자라는 분절지점과 국가/시민사회의 또 다른 분절지점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본다. 특히 제주 도민

사회가 주민사회의 갈등이 첨예해질 때,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해왔다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섬 전체 투쟁’의 형식으로 주민사회의 운동과 도민사회가 일치하는 현상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 점에서 제주와 오키나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주민사회 안에서의 첨예한 갈등과정에서 내가 확인하는 것은 주민/비주민의 경계를 가차 없이 나누는 현상인데, 이것은 강정투쟁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대두한 것이었다. 이 특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기존의 시민사회와는 투쟁의 강도와 시각이 차별적인 제주민중연대가 제주 안에서 해게모니를 획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듣고 싶다. 천막촌의 경우는 김경배 씨의 투쟁 이후 현재는 생태주의·아나키즘·페미니즘·평화주의·직접행동에 기반한 이전과는 다른 활동면모를 보이는 듯한데, 적어도 전국적 이슈화와 제2공항 문제의 의제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는 이 현상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훈교 선생은 제주의 시민사회 안에서의 해게모니 양상에 대해서만 분석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나는 제2공항이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라든가 관광·개발 담론은 외피이고, 결국은 대중국 포위·견제용의 한국과 미국의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두 분 선생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번거롭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견을 일부나마 듣고 싶다. 감사드립니다.

최진석(일본 히로시마대학 교수)
CHOI Jinseok(Associate Professor, Hiroshima University)

1. 니시하라 씨에 대한 응답

국가주의 내지 국가의 틀을 넘어서 미래지향의 사회학,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바라는 니시하라 씨 주장에 나는 기본적으로는 공감한다. 다만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과거를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극복되지 않은 과거는 되풀이되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현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거를 극복할 때 처음으로 미래는 열린다. 과거미래. 과거는 미래의 입구이다. 진짜 미래 지향이란 이러한 과거지향적인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 현재 헤노코와 다카에에 새로운 미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은, 또 제주도 강정에 한국(미국) 군사기지가 만들어진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냉전의 시작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그리고 그 커다란 전쟁의 도화선이 된 제주4.3)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현재 한국(문재인)이 매개가 되어 한국전쟁 종결을 향해 아시아가 움직이고 있다. 냉전에 의한 분단을 넘어서 처음으로 동아시아가 동아시아가 되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아무 의문 없이 말해 온 느낌이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북한이나 중국의 존재(사회주의 실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를 말하면서 그 반박에 못 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가 동아시아가 되면서 냉전 후의 동아시아의 존재 방식이 진지하게 요구 될 것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현실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논의할 때 일본, 한국, 중국...이렇게 국가를 늘어놓으면서 구상하면 안 될 것이다. 국가주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지금까지의 전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래할 “동아시아 공동체”는 극복되지 않은 동아시아의 과거(냉전)를 떠맡고 있는 오키나와, 제주도, 대만, 즉 동아시아의 섬들의 역사를 분유하는 것으로부터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미래, 아직까지 극복되지 않은 동아시아의 과거가 동아시아의 미래이다. 도래할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시 국가간의 공범관계에 의해 과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전쟁(제주4.3), 한국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동아시아의 극복되지 않은 과거가 일으킨 여러 문제의 주인공인 미국의 책임을,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물어야 할 것이다.

2. 장훈교 씨에 대한 응답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시민사회의 갈등을 헤게모니 투쟁 관점에서 분석하며 “현재 제주시민사회의 최대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안 문제”라고 결론짓는 점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이 커다란 문제와 맞서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현재 사회 상황을 어떻게든 타파하려는 의도에도 깊이 공감한다. 2019년 5월말 시점에서 필요한 운동론이다. 하지만 그 한편, 제2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다루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것은 장훈교 씨 발표 문제라기 보다는 제주시민사회의 문제이다. 제2공항 건설 문제는 동아시아적 문제인데 시야가 국가의 논리에 갇혀 있다. 그 때문에 제주시민사회를 둘러싼 더욱 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와 정치가 결락되어 있다. 냉전적 사고에 빠지고 국가의 논리에 갇혀 있는 한, 문제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이하, 제2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동아시아화하면서 논하며 장훈교 씨에 대한 응답으로 하겠다.

제2공항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불투명함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3개 있다.

첫째, 제주도지사의 악랄함에 의한 데가 크지만 건설계획 내지 그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다. 건설계획에 대해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전혀 없으며 완전히 억지이다.

둘째, 제2공항 건설을 찬성 및 추진하는 이익공동체 전모의 불투명함이다. 성산의 풍부하고 귀중한 자연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건설회사나 지주들이 속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2공항에 “남부 탐색 구조 부대”라는 명칭의 공군 기지가 들어선다는 공군 참모 총장의 발언에도 있듯이, 제2공항이 공군기지를 겸한다면 그 배후에는 필연적으로 한미의 “안보 마피아”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거대한 이익공동체이다.

한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 있으며 한국군의 기지는 실질적으로는 미군기지이기에, 또 미군은 한국에 있는 공항을 사용할 수 있기에 강정 해군기지과 마찬가지로 제2공항은 미군기지(비행장)가 될 수도 있다. 강정과 오키나와 해노코의 새로운 기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아시아 회귀) 아래서 연동되어 있듯이, 미군의 원자력항모가 들르는 강정 기지와 제2공항 건설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동아시아 지도를 보면 명확하지만 그것들은 중국 포위망이다. 이는 추측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과 북한은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제2공항은 겉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이지만 그 뒷면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위기)을 유치하고 있다.

셋째 불투명함은 제2공항 건설을 역사화하는 시각의 결여이다. 1948년부터 시작한 제주4.3이 미국의 전쟁,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미국의 자본주의 확대의 희생이었다면 강정은 4.3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강정이며 4.3이다.

제주4.3, 강정, 제2공항. 이 3개의 역사적 사건에는 위로부터의 강대한 압력(국가권력, 국가

폭력)에 의해 공동체가 갈등, 분열되어 파괴되었다는 공통점(내전의 슬픔)이 있다. 그리고 강정, 제2공항을 찬성 내지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선 밑바닥에 레드 콤플렉스, “빨갱이”이라는 울림이 섞여 있지 않은가?

제주4.3 정신은 평화와 인권이 아니라 자주와 독립이다. 평화 인권 운운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제주4.3의 소비이며 또 하나의 은폐이다. 제주4.3은 해방공간에서 조선 민중들이 희구한 미국(및 제국일본의 그늘)으로부터의 자주와 독립, 그 표현이었다. 강정 기지가 결국은 미군에 의한 점령에 지나지 않듯이 제2공항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다면 제주4.3, 강정, 제2공항을 연결하는 역사적 상상력으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자주와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자주와 독립은 제주도(한반도)와 오키나와의 미래이다. 다만 미국(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또 하나의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평화 체제에 바탕을 두는, 타자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자주와 독립이어야 할 것이다. 자주와 독립이 향하는 방향은 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동아시아로의 열림이다.

제주4.3, 자주와 독립. 미래는 과거에서 찾아온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아직 과거를 파내려 가는 도중에 있는 것 같다. 71년도 걸리고 있지만 아직 71년 전에는 못 다다르고 있다.

討論文

崔真碩

1、西原氏への応答

国家主義ないし国家の枠組みを超えて、未来志向の社会学、東アジア共同体、そして東アジアの平和を求める西原氏の主張に、私は基本的には共感する。ただし、未来を志向するには、まず何よりも、過去を克服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克服されていない過去は繰り返され、死に体の現在が続くからだ。過去を克服することで初めて、未来は開かれる。過去未来。過去は未来の入り口だ。真の未来志向とは、こうした過去志向的な態度にあるのではないか。

沖縄に米軍基地があること、現在、辺野古と高江に新たな米軍基地が建設されてしまっているのは、また済州島の江汀に韓国（米国）の軍事基地ができてしまったのは、東アジアではまだ冷戦が終わっていないからだ。東アジアに新たな平和体制を築くには、まずもって、アジア冷戦の始まりであり未だに終わっていない朝鮮戦争（そしてその大きな戦争の導火線としての済州4・3）を克服する必要がある。私たちアジア人はこのことを肝に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現在、韓国（文在寅）が媒介となって、朝鮮戦争終結に向けてアジアが動いている。冷戦による分断を越えて、初めて、東アジアが東アジアになっている。私たちは、「東アジア」を疑いもなしに語ってきた感があるが、しかし、そこには北朝鮮や中国の存在（社会主義の内実に対する深い理解）が欠落していたように思う。「東アジア」を語りながら、その半分しか見てこなかったのだ。東アジアが東アジアになるなかで、冷戦後の東アジアの在り方が真摯に求められていくだろう。今後、〈東アジア共同体〉をめぐる議論はリアリティを帯びていくはずだ。

ただし、〈東アジア共同体〉について論じるとき、日本、韓国、中国・・・と国家を並べ立てて構想すべきではない。国家主義の論理に陥らないためには、またこれまでの戦争の歴史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は、到来する〈東アジア共同体〉は、克服されていない東アジアの過去（冷戦）を背負い込んでいる沖縄、済州島、台湾、すなわち東アジアの島たちの歴史の分有を起点にして構想されるべきだ。

繰り返し言うが、過去未来、未だに克服されていない東アジアの過去こそが東アジアの未来だ。到来する〈東アジア共同体〉は、再び国家間の共犯関係によって過去を抑圧するのではなく、過去を克服してゆくべきだ。そのとき、私たちアジア人は、朝鮮戦争（済州4・3）、韓国と沖縄の米軍基地・・・東アジアの克服できていない過去が引き起こした諸問題の主役である米

国の責任を、戦後東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存在を、改めて真摯に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

2、チャン氏への応答

第二空港建設をめぐる済州市民社会の葛藤をヘゲモニー闘争の観点から分析し、「現在、済州市民社会の最大の課題は、新しいリーダーシップの創案問題」と結論付けている点に私は基本的に共感するし、この大きな問題をめぐって息が詰まりそうな現在の社会状況を何とか打破せんとする意図にも深く共感する。2019年5月末の時点で必要な運動論だ。だがその一方で、第二空港が孕んでいる問題を表面的にしか捉えられていない印象を受ける。それはチャン氏の論考の問題というよりも、済州市民社会の問題だ。第二空港建設の問題は東アジア的問題なのに、視野が国家の論理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そのため、済州市民社会を取り巻くより大きくてより根本的な問題である東アジア冷戦の歴史と政治が欠落している。冷戦的思考に囚われ、国家に閉じこもっている限り、問題の本質は見えない。以下、第二空港が孕む問題を東アジア化しながら論じ、チャン氏への応答としたい。

第二空港建設をめぐる根本的な問題は、その不透明さにあると私は思う。不透明は3つある。

1つ目は、済州道知事の悪辣さ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建設計画ないしその過程が余りにも不透明だ。建設計画についての誠実で説得力のある説明が一切なく、完全にゴリ押しだ。

2つ目は、第二空港建設を賛成・推進する利益共同体の全貌の不透明さだ。城山の豊かで貴重な自然がカネにしか見えない大手ゼネコンと地主たちが属しているのは勿論だが、第二空港に「南部探索救助部隊」という名称の空軍基地が入るという空軍参謀総長の発言にもあるように、第二空港が空軍基地を兼ねるのであれば、その背後には、必然として、韓米の安保ムラが絡んでくる。強大な利益共同体だ。

韓国軍の指揮権は米軍にあり、韓国軍の基地は実質的には米軍基地なので、また米軍は韓国の空港を使用できるので、江汀の海軍基地と同様に、第二空港は米軍基地（飛行場）にもなり得る。江汀と辺野古の新基地が米国の東アジア戦略（アジア回帰）の下で連動しているように、米軍の原子力空母が立ち寄る江汀基地と第二空港建設は連動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東アジアの地図を見れば明らかだが、それらは中国包囲網だ。これは推測の域を出ない。だが、少なくとも、中国と北朝鮮は脅威を感じているはずだ。第二空港は、表向きは中国人観光客の誘致だが、その裏では中国との戦争（の危機）を誘致している。

3つ目の不透明は、第二空港建設を歴史化する視覚の欠如だ。1948年から始まった済州4・3が、米国の戦争・米国の東アジア覇権・米国の資本主義の拡大の犠牲だったとするならば、江汀は4・3だ。そして、第二空港は江汀であり、4・3だ。

済州4・3、江汀、第二空港。この3つの歴史的出来事には、上からの強大な圧力（国家権

力、国家暴力)によって、共同体が葛藤・分裂し、破壊されているという共通点(内戦の悲しみ)がある。そして、江汀・第二空港を賛成ないし黙認している人々による反対運動している人々への眼差しにレッド・コンプレックス、“パルゲンイ(アカ)”の響きは混ざっていないか。

済州4・3の基本精神は、平和と人権ではなく、自主と独立だ。平和、人権云々は、国家による済州4・3の消費であり、もうひとつの隠蔽だ。済州4・3は、解放空間において朝鮮民衆が希求した米国(および帝国日本の影)からの自主と独立の表現であった。江汀基地が結局は米軍占領に過ぎないように、第二空港も同じ運命にあるのなら、済州4・3、江汀、第二空港を繋げる歴史的想像力で、私たちアジア人は今ここで、自主と独立について語り合うべきだ。

3、最後に

自主と独立は、済州島(朝鮮半島)と沖縄の未来だ。ただし、米国(日本)から独立し、もうひとつの国民国家を立ち上げるのではなく、それは、平和体制に基づいた、他者との共存を求める、他者に向かって開かれた自主と独立であるべきだ。自主と独立が向かうべき方向は、国家の樹立ではなく、東アジアへの開かれた。

済州4・3、自主と独立。未来は過去からやってくる。私たちアジア人はまだ過去を掘り下げる途中にあるようだ。71年もかかっているが、まだ71年前には辿り着けていない。

정영신(도청 앞 천막촌 연구자공방 연구자)
JEONG Young Sin(Researcher, Research Workroom of Citizen's Tent Village)

[별 지]